

한 대 5백만원...

한국산 명품 기타를 만드는 사나이



엄태홍은 한 달에 한 대씩, 일 년에 기타를 딱 12대 만든다. “죽는 순간까지 기타 만들다가 죽겠다”라고 그가 말했다. 올해로 기타 제작 43번째. 1932년 아버지가 시작한 기타 제작이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홍식

박종인이 만난 외길인생 기타 匠人 엄태홍

1997년 세상을 뜬 엄상옥은 평생 기타를 만들었다. 1932년부터 기타를 만든 한국 기타 장인(匠人) 1호다. 1960년대 송례문 중수 때 얻은 550년 된 금강송(金剛松) 송판으로 만든 기타는 지금도 목직하게 저음을 울어낸다.

아들 엄태홍(66)도 기타를 만든다. 매일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작업실로 들어가 하루 종일 공구와 나무와 접착제와 씨름하며 한 달에 딱 한 대씩 기타를 만든다. 1년에 12대, 가격은 300만원이다. ‘명기(名器)’라 자부하는 500만원짜리 기타도 서너 대 있다. 그는 “20년 전에 사둔 나무 판들 아껴왔다 죽는 순간까지 기타 만들겠다”고 했다.



선친 엄상옥이 만든 ‘송례문 기타’ (맨 앞). 1960년 송례문 보수공사 때 나온 550년 된 금강송으로 만들었다.

■ 한국 기타 장인 1호 엄상옥

엄상옥이 19세 되던 1932년, 그는 갓 한국에 보급된 기타에 빠졌다. 이웃집 형이 연주하는 기타 음색에 빠져버린 그는 그 기타를 어렵게 빌려 연구했다. 비싼 남의 기타를 분해하기도 못했고 참고서도 없었지만 그는 기타를 만들어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기타 제작이 일제강점기에서 전쟁, 세월을 훌쩍 넘겨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6·25가 터지자 엄상옥은 충남 홍성으로 피란갔다. 서울 수복 후 돌아와보니 서울의 집도 공장도 사라지고 없었다. 동생 집 마당을 빌려 시멘트 블록으로 두 칸 집을 지었다. 한 칸은 살림방, 하나는 작업실. 거기에서 엄상옥은 다시 기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제 치하에 전쟁까지 겪은 나라에 악기를 만들 악기목(樂器木)이 있을 리 없었다. 악기목은 10년, 20년 건조한 나무를 써야 비틀어지지 않고 소리도 고르게 낸다. 엄상옥은 미군군이 쓰다 버린 기타, 중고 가구를 구해 기타를 만들었다. 그 기타를 들고 미군부대로 가면 미군들이 악기를 사갔다.

전쟁이 끝나고 엄상옥은 ‘다이아몬드 기타’라는 상호를 내걸었다. 외국 연주자들의 녹음테이프를 구해 들고 기타를 만들어 연주도 해왔다. 음이 다르게 들리면 부수고 다시 만들었다. 어느 틈에 엄상옥제 기타가 제 음을 내기 시작했다.

서울 왕십리 다이아몬드 기타 작업실은 예인(藝人)들의 사랑방이었다. 수제(手製) 다이아몬드 기타는 동호인들과 연주자들 사이에 명품으로 소문이 났다. 연주가, 기타 교사들이 작업실로 와 기타를 연주하고 기타를 사갔다. 전혼이 가시자 기타 제작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다 가르쳐줬다. 내로라하는 기타 장인들이 모두 그의 제자들이었다.

1960년 송례문 보수공사 때 금강송 목재가 나왔다. 550년 동안 건조된 최고의 악기목이다. 버려려던 이 나무를 엄상옥이 구해 기타 3대를 만들었다. 그 즈음 괴테문화원 초청으로 한국에 공연왔던 베를린음대 교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지그프리트 베렌트가가 이 기타를 보고 평했다. “맑고 쾌적한 육성과 비슷한 음을 가진 뛰어난 연주용 악기다.” 엄상옥은 그에게 송례문 기타를 증정했다. 또 한

대는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지음(知音)인 미국 연주가 소포클레스 파파스에게 갔다. 국내에 하나 남은 송례문 기타는 1980년대 초까지 오세훈, 금병준, 강우식 등 당대 명연주자들이 연주회에 사용했다. 이후 엄상옥은 생산 대수를 줄이고 명기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 죽기 전 엄상옥은 말했다. “내 인생에서 기타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 어린 엄태홍의 추억

국내에 하나뿐인 송례문 기타는 둘째 아들 엄태홍이 가지고 있다. 아들이 말했다. “처음에는 기타 만들 생각이 없었다. 학교 갔다 와 보면 2층 작업실

연주자 꿈꾸다 가업 이어... 선친 엄상옥은 한국 기타 장인 1호 명기 만들겠다고 독일 가서 배웠더니 결국 ‘스승 흉내’에 그쳐 “자존심 걸고 새로 시작... 2002년 나만의 소리가 터지더군요”



에 연탄 난로 피워놓고 가난한 제작자들이 가난하게 앉아 있었다. 그렇게 살기 싫었다.”

기타라는 것이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잠잘 때 쓰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악기 만들어 파는 것, 그리 좋은 사업 아이템도 아니었다. 소년 엄태홍은 절대 가업을 잇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연주를 했다. 작업실 찾은 연주자들이 소년에게 기타를 가르쳐줬다. 애잔한 기타 음색이 좋아 그는 기타리스트가 되기로 했다. 군대에 가기 전 방송국에서 녹음한 자기 연주회 실황이 훈련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내 손이 너무 작아요. 기타 현을 짚으려면 손이 커야 하죠. 남들은 음악 할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코드 짚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연주자로는 미달이죠.”

가난한 기타 제작자의 아들. 그래서 유학을 갈 형편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기타는 아주 좋았다. 1965년 결혼과 함께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엄태홍 기타’ 제작소를 차렸다. 엄태홍은 연주의 꿈을 제작자들 통해 풀겠다고 마음먹었다.

■ 명기(名器)를 찾아서

기타는 합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타 만드는 나무는 20년 넘게 건조시킨 독일제 스푸루스와 장미목, 단풍목이다. 국내에는 그런 재료가 없다. 그는 “재활용 재료 아니면 대충 말린 나무를 쓰다 보니 음질이 형편없었다”고 했다. 기타가 탄생한 유럽의 기타 제조 방식도 알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가 확립한 ‘한국형’ 제조법을 개량하고 따라 할 뿐이었다.

전직 연주가요 신생 제작자 엄태홍이 속앓이하는 사이에 한국에 히피문화가 도래했다. 기타의 전성시대가 온 것이다. 장발에 청바지, 통기타가 청년문화의 상징이 됐다.

그는 “간첩사건 났을 때, 등특급 내는 학기 초, 김장철 빼고는 솔솔히 기타가 팔렸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기타를 막 만들었다. 유신시대, 영문도 알 수 없는 간첩사건이 수시로 터졌지만 엄태홍의 공장에서는 푹푹푹 기타가 생산됐다.

80년대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풍족해진 대학생들 돈주머니는 악기점에서 술술 풀려 나왔다. 그런데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엄태홍의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좋은 명기를 만들고 싶다...”

1989년 어느 날 평소 악기 판매를 위해 다이아몬드 기타와 엄태홍 기타를 자주 찾던 일본의 기타 장인 마쓰무라가 한국에 왔다. 엄태홍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프랑스 장인에게 배우지 않았나. 나는 아버지한테 배웠지만 외국 것보다 못하다. 당신한테 배우고 싶다.”

몇 번씩 못 들은 척 하던 장인은 엄상옥이 만든 송례문 기타를 쳐보더니 “당장 내 작업실로 오라”고 했다.

그는 부푼 가슴을 안고 일본에 갔다. 마쓰무라는 열혈 내내 잡채우고 밤만 먹이더니 그냥 그를 돌려보냈다. “마음이 변한 거지요. 너무 열 받아서 울화통이 터져서 귀국했어요.”

▶ B2면에 계속



그들은 왜 결혼설을 부인했을까 B3

지난해 6월 결혼설을 강력히 부인했던 두 사람이 11월에 결혼했다. ‘천재소녀’ 윤송이 전 SK텔레콤 상무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은 왜 결혼설을 부인했을까.

좌뇌가 멈춘 후 인생이 바뀐 뇌 과학자 B4

하버드대 뇌 과학자 질 테일러 박사가 서른일곱 되던 해 겨울, 왼쪽 눈 뒤 혈관이 터졌다. 그녀는 그때 “좌뇌가 멈추는 순간 행복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영어로 웃기는 개그맨 김영철 B5

“얼마 전 이경규 선배가 영어공부하겠다는 후배에게 ‘중국어를 해라. 영철이가 영어하는데 5년 걸렸는데 네가 5년 걸려 영어 하면 그때 재는 더 잘하지. 그러니 중국어 배워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무라이 무술의 계보 B6

77세의 할머니가 이탈리아 공수부대를 가르친다. 그녀의 무술은 합기도의 한 유파다.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을 지킨 검술에서, 맨손 관절술, 유도, 유술까지 이어진 일본의 사무라이 무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색 콘서트 600회 맞는 피아니스트 윤효간 B7

“예술적 영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남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